정책동향 폭염 장기화 대비 농산물 수급관리 강화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 기획재정부(2018.8.1.) · 농림축산식품부(2018.8.2./8.3.)

❑ 개요

○ [폭염 대응 국무총리 긴급지시, 8.1.]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상 최악의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

- 1)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건축·토목 공사는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며칠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2) 민간부문 작업장에도 이 같은 내용을 권고하고 특히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 3) 농어민 등도 폭염이 계속되는 며칠 동안 낮 시간대 작업을 하지 말도록 적극 안내할 것

○ [기획재정부, 「제8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8.1.]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제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폭염에 따른 농축수산물 수급·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 (참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청장 발언〉

◈ 최근 물가 상승률은 1%대로 안정적이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농산물, 수산물, 석유류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음.

- 특히, 7월 10일 이후 폭염 영향으로 배추, 상추 등 일부 채소류 가격의 강세로 체감물가는 높게 인식되고 있으나,
- 7월 물가상승률이 1.5%에 그친 요인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폭우·폭염에 의한 상승률이 높아 기저효과로 채소류 가격은 1.0%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이 안정되었기 때문임.

◈ 체감물가는 일반 시민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물가이며, 최근 시점과 비교하거나 자주 구입하는 품목, 가격 하락보다 가격 상승에 민감한 측면이 있으며 측정상, 심리적 요인 등에 의해 공식물가와는 차이가 있음.

◈ 통계청은 그동안 체감물가와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생활물가지수 개발, 가중치 개편주기 단축, '나의 물가 체험' 등을 통해 국민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 금년에는 가중치 기준시점을 현재 2015년에서 2017년으로 최신화하여 현실 설명력을 높일 계획임.

○ [농식품부, 폭염 장기화 대비 농산물 수급관리 강화, 8.2.] 비상 T/F 가동, 수급안정 및 폭염 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한편 유관기관과 함께 농업인 폭염 대응 관리체계를 마련

정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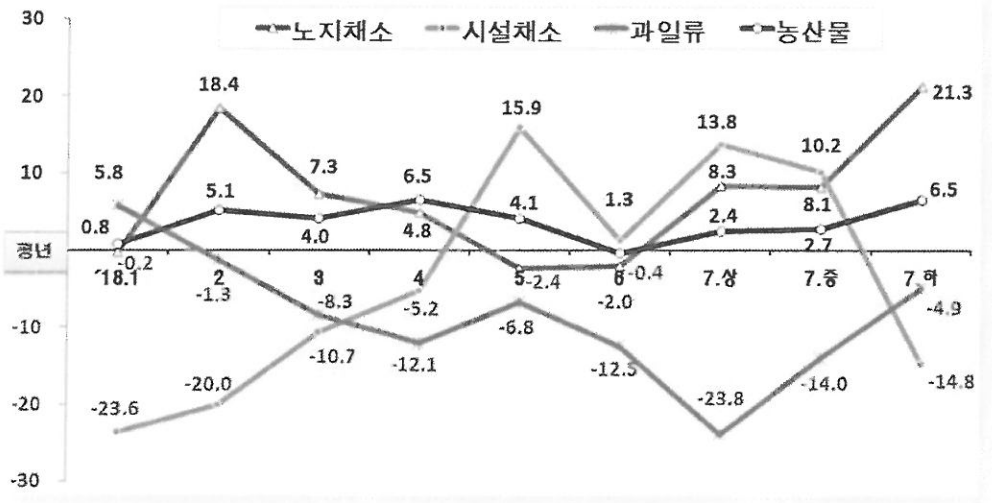
❑ 전체 동향

○ 최근 농산물 가격은 폭염 지속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이며, 7월 하순 도매가격 기준으로 평년보다 6.5% 높은 시세※

※ 농산물 도매가격 등락률(평년 대비): (7월.상) 2.4% → (7.중) 2.7 → (7.하) 6.5

- (배추·무) 특히, 폭염의 영향을 크게 받는 배·무 등 노지채소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 상승세를 주도
- (시설채소) 시설재배 특성상 폭염 피해가 크지 않고, 고온으로 생육이 빨라져 조기 출하가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하락
- (과일) 복숭아·포도 등 여름철 과일의 계절적 수요 증가, 4월 이상저온에 따른 생산량 감소, 7월 폭염으로 인한 햇볕데임(日燒) 피해 등으로 가격 상승세이나, 작년산 저장물량이 주로 출하되고 있는 사과, 배의 공급량이 많아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평년보다 낮은 수준

▌2018년 1월~7월 하순 도매가격 등락률(%) ▌



❑ 주요 품목별 수급 동향 및 전망

○ [노지채소] 배추와 무 가격은 7월 상순까지 평년 수준에서 안정세가 유지되었으나, 7월 중순부터 폭염이 지속되면서 작황이 악화되어 상승세※로 전환

※ 배추 도매가격: (7월.상) 1,630원/포기 → (7.중) 2,650 → (7.하) 3,500(평년 대비 50%↑)

※ 무 도매가격: (7월.상) 1,128원/개 → (7.중) 1,447 → (7.하) 2,026(평년 대비 66%↑)

정책동향

- (고랭지 배추·무) 노지에서 재배되고,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특성상 고온·가뭄에 특히 취약한데, 7월 중·하순 기록적인 폭염으로 출하가 지연되고 작황도 악화되어 가격이 상승※

  ※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고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배추·무 가격은 강세 기조가 이어질 전망, 다만 9월의 경우 출하 예정 재배면적이 평년보다 증가(평년 대비 배추 4%↑, 무 5%↑)하여 추석 전 큰 수급 불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상에 따른 작황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음.

- (김장배추) 아직 정식 전(8월 하순부터 정식)이나, 중앙주산지협의회 등을 통해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함으로써 수급 불안이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

- (얼갈이배추, 열무) 배추·무와 대체 소비가 가능한 얼갈이배추와 열무는 폭염으로 7월 상·중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생육기간이 25~30일 내외로 짧아 7월 하순부터는 평년보다 낮은 시세※

  ※ 얼갈이배추 도매가격: (6월.하) 4,192원/4kg → (7.상) 6,815 → (7.중) 8,904 → (7.하) 6,146 (평년 대비 26%↓)

  ※ 열무 도매가격: (6월.하) 7,562원/4kg → (7.상) 10,379 → (7.중) 10,954 → (7.하) 7,605(평년 대비 7%↓)

○ [시설채소] 수박 등 일부 품목에서 높은 시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설재배 특성상 폭염 영향은 제한적이며, 가격도 전반적으로 낮게 형성

- (수박) 폭염 영향으로 과실 크기가 작고 과육이 적자색을 띠면서 신맛이 나는(피수박) 등 상품성이 저하되고, 휴가철에 따른 계절적 수요도 증가하여 높은 시세※, 다만 8월 중순부터는 경북 봉화·영주 등 신규 출하지를 중심으로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회복할 전망

  ※ 수박 도매가격: (7월.상) 12,524원/8kg → (7.중) 15,287 → (7.하) 21,384(평년 대비 54%↑)

- (토마토) 폭염으로 생육이 빨라져 조기 출하가 이루어지면서 출하량에 따라 가격 등락이 반복※, 7월 중순에는 남부지역 출하가 조기 종료(7월 하순 → 7월 상순)되어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7월 하순에는 강원지역 물량이 조기 출하(8월 상순 → 7월 하순)되면서 다시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폭염 지속 시 가격 등락세가 이어질 전망

  ※ 토마토 도매가격: (7월.상) 9,086원/10kg → (7.중) 18,286 → (7.하) 12,851(평년 대비 11%↓)

- 애호박, 오이, 파프리카, 가지, 청양고추※ 등 대부분의 시설채소는 당분간 평년 대비 낮은 시세가 유지될 전망

정책동향

※ 애호박 도매가격: (7월.상) 12,078원/20개 → (7.중) 8,689 → (7.하) 5,666(평년 대비 61%↓)

※ 오이 도매가격: (7월.상) 42,625원/100개 → (7.중) 38,634 → (7.하) 31,259(평년 대비 15%↓)

※ 파프리카 도매가격: (7월.상) 15,516원/5kg → (7.중) 11,820 → (7.하) 11,543(평년 대비 1%↓)

※ 가지 도매가격: (7월.상) 8,208원/5kg → (7.중) 6,226 → (7.하) 6306(평년 대비 38%↓)

※ 청양고추 도매가격: (7월.상) 39,768원/10kg → (7.중) 45,927 → (7.하) 35,636(평년 대비 1%↓)

○ [과일] 대표적인 여름철 과일인 복숭아, 포도 등은 4월 이상저온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봉지 씌우기를 했음에도 일부 지역에서 폭염으로 햇볕데임 피해※가 발생해 평년 대비 소폭 높은 시세※※가 형성

※ 햇볕데임 피해면적: (포도) 47.9ha, (복숭아) 1.7ha

※※ 포도(캠벨) 도매가격: (7월.상) 28,311원/5kg → (7.중) 25,697 → (7.하) 24,027(평년 대비 6.4%↑)

※※ 복숭아(백도) 도매가격: (7월.상) 15,437원/4.5kg → (7.중) 18,628 → (7.하) 17,392(평년 대비 11.4%↑)

- (사과) 작년산 저장물량이 주로 출하되고 있어 평년 대비 다소 낮은 수준※에서 안정세 지속, 햇사과 상품성 저하 시 추석 무렵 가격 상승이 우려

※ 사과(부사) 도매가격: (7월.상) 25,726원/10kg → (7.중) 21,842 → (7.하) 24,027(평년 대비 6%↓)

- (복숭아, 포도) 폭염 지속에 따른 햇볕데임 확산, 계절적 수요 증가 등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

수급·가격 안정 대책

○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8일부터 운영해 온 '고랭지 배추 수급 안정 T/F'를 7월 27일자로 '폭염 대응 농축산물 수급안정 비상 T/F※'로 확대하여 수급관리에 만전

※ 단장(식품산업정책실장), 부단장(유통국장), 4개반(총괄·채소, 과일·과채, 식량·농촌용수, 축산)으로 운영, 지자체·농촌진흥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농협경제지주 등 참여

○ 폭염으로 수급이 불안한 배추·무는 산지기동반(현지 상주)을 통해 생육 모니터링(20~50개 포전/일)을 강화하면서, 비축물량 방출, 조기 출하 유도, 할인 판매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수급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

- (배추) 당분간 비축물량(잔량 4천 톤)을 1일 100~200톤 수준 집중 방출하는 한편, 채소가격안정제(6.7천 톤)를 활용한 출하 조절도 병행

- (무) 채소가격안정제(3.5천 톤) 및 산지유통인 협력을 통해 조기 출하(8월 중순 → 상순)를 유도하고, 할인판매(7.21.~, 1,500원/개, 시중가 대비 40~50%↓, 농협매장)도 지속 실시

정책동향

- (시설채소·과일) 수급 상황을 일일 모니터링하면서, 품목별 여건을 고려하여 적기에 수급 대책※을 시행할 계획
  - ※ 수박: 할인행사(7.26.~8.1., 시중가 대비 20%)를 실시하여 소비지 가격 안정을 유도
  - ※ 토마토: 계약재배 물량 활용한 출하 조절로 출하량을 안정적으로 관리
  - ※ 애호박: 산지폐기(280톤) 및 품위저하품 출하 억제(400톤), 대형유통업체로의 분산 출하 등을 통해 도매시장 반입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 안정을 유도
  - ※ 오이·파프리카·청양고추: 시장 동향을 상시 점검하면서, 가격 상승 시 계약재배 물량 조기 출하 유도, 할인행사 등의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
- (과일) 가격 상승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계약재배 물량 및 자조금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출하량을 조절하는 한편, 햇볕데임 및 냉해 피해 과실의 가공용 수매 지원도 적극 검토할 계획
- 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KAMIS) 등을 통해 품목별 가격동향, 할인판매 매장, 직거래 장터 등 정보도 지속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유도해 나갈 계획

○ 폭염 지속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지원 및 급수·약제·인력 등 긴급 영농지원도 현장감 있게 지속 추진

- 중앙단위 현장기술지원단(8개반, 84명)을 통해 병충해 진단 및 처방, 물 관리 및 시비 등 생육관리, 과수의 웃자란가지 제거 및 잎따기 작업 연기 등 품목별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
- 농약·영양제 등 약제 할인 공급(7.23.~, 50~60% 인하, 농협)과 함께, 농협 산지작업반·공동방제단 등을 통한 작업인력 지원도 지속
- 간이 급수시설 설치, 살수차 운영 등에 필요한 급수 대책비용을 7월 27일에 긴급 지원(총 30억 원)하였으며, 산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추가 지원도 적극 검토할 계획

❑ 농업인 폭염 피해 예방

○ 농식품부는 농업인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산림청·농협 등과 협력하여 폭염 대응 관리체계 마련하고, 농업인 교육을 통한 농업인 폭염 안전수칙 집중 홍보 추진

※ 금년 온열질환자 2,355명 중 210명이 농림어업 관련 종사자이며, 총 29명의 사망자 중 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8.1일 기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주요 내용) △농식품부‥고령농·취약농업인 대상 온열질환 진단과 수액·냉방용품 지원 확대, △농촌진흥청‥지역담당관제(191명) 현장 지원, △산림청‥전국 사업장 합동 점검, △농협‥ '농업인 행복콜센터' 안부전화 등 운영